

# 여수 발전 이끌 '스타 中企' 키운다

'알메탈' '드림라임' '코인즈' 3개 기업 선정

3년간 기술개발·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

여수시가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크고, 지역 산업발전을 주도해 나갈 대표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시는 지난 7일 시청 상황실에서 알메탈(대표 송중근), 드림라임(대표 김창경), 코인즈(대표 최명환) 3개 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선정하고 업무 협약 체결 및 지정서 수여식을 가졌다.

시는 스타기업 육성을 위해 지난 4월 전남 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체

이번에 선정된 스타기업은 기업육성 전담기관인 전남 테크노파크의 스타기업 육성 프로그램에 의해 ▲기업 경영에 필요한 기술개발 ▲마케팅 ▲체계적인 기업분석을 통한 현장밀착형·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업 지원 등을 3년간 지원받게 된다.

시는 스타기업 육성을 위해 지난 4월 전남 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체

결하고 여수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했다. 또한 이들 가운데 스타기업 참여를 원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방문과 조사, 발표평가 등 적격심사를 거쳐 기술과 사업성이 우수한 3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1997년 창립한 알메탈은 지난해 280억원의 매출을 올린 자동차나 가정용 열교환기 공조부품 제조업체로, 45명이 근무하고 있다. 2003년에 설립된 드림라임은 칼슘제재 제조업체로, 종자산 22억4000만원·상시종업원은 15명 규모다. 또한 코인즈는 지

난 2005년 설립돼 배관공사·배관검사 등을 주력으로 삼는 업체로, 현재 자산총액은 28억5900만원이며 근로자는 23명 규모의 소기업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스타기업 육성의 승리는 기업육성 전담기관인 전남 테크노파크와 스타기업이 생산적인 파트너십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들 기업이 핵심 기술경쟁력을 확보해 여수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보성군, 고품질 브랜드쌀 '남촌풍미' 시판

부산·광주 소비자 등 200여 명 참석

밥냄새·윤기·향·찰기 등 시식 평가

보성군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브랜드 쌀에 대해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섰다.

보성군은 최근 득량농협 회의실에서 부산과 광주 지역 도시 소비자와 관내 농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촌 풍미' 품질 및 식비 평가회를 가졌다.



〈사진〉 이번 평가회는 최고급 브랜드쌀 생산단지에서 생산된 '남촌 풍미'와 공공비축미 매입품종 등 3종의 쌀을 대상으로 취사된 밥냄새와 윤기, 향, 찰기 등을 비교 평가했다.

이번 행사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무작위로 베를 수거한 후 동일 조건으로 도정해 범을 짓고, 밥맛 시식평가에도 품종과 브랜드를 기재하지 않고 시료별 고유 번호를 부여해 진행했다.

시식 평가 결과 소비자로부터 최고급 브랜드쌀 생산

/보성=김용백기자 kyb@

##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고흥군 행안부장관 표창

고흥군이 행정안전부 주관의 '2012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는다. 전국 22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고흥군의 지방물가 안정정책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었다.

군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6종의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증폭되고 있음에도 수년째 동결 관리하고,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상행위를 집중단속하기 위해 관광행락철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했다. 또한 개인서비스 요금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착한가격 업소' 지정을 적극 추진하는 등 다양한 물가안정 시책을 펼쳤다.

고흥군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등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흥=주기증기자 gjju@



## 여수산단 로타리클럽 사랑의 연탄 배달

여수산단 로타리클럽(회장 김봉현) 회원들이 최근 여수시 둔덕동에서 '사람의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회원들은 소외계층 15세대에 3000장의 연탄을 배달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왔다.

〈여수시 제공〉

## 여수시 노사민정 협력 사업

###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여수시가 고용노동부 주관의 '2012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내년부터 청소업무를 대행하게 될 시 도시공사가 최근 환경 미화원 경력직 공개 모집을 한 결과 276명 모집에 269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여수시 청소업무를 맡아온 여수 보건공사, 여천 보건공사, 그리고 여천 환경 등 기관 3개 업체의 근무인원증 연말 정년예정자 7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경력직에 응시한 한 환경미화원은 "도시공사에서 기존 근무성과를 그대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미화원들이 입사를 희망하고 있다"며 "근무여건과 복지혜택 등 모든 측면에서 기존 업체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 도시공사는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오는 1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여수시 청소업무 도시공사 대행

### '위탁→직영' 인력 고용승계 해결

내년 1월 1일부터 청소업무를 여수시 도시공사가 대행하는 가운데 당초 우려가 제기됐던 기존업체의 인력 고용승계 문제를 해결돼 이관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내년부터 청소업무를 대행하게 될 시 도시공사가 최근 환경 미화원 경력직 공개 모집을 한 결과 276명 모집에 269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여수시 청소업무를 맡아온 여수 보건공사, 여천 보건공사, 그리고 여천 환경 등 기관 3개 업체의 근무인원증 연말 정년예정자 7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경력직에 응시한 한 환경미화원은 "도시공사에서 기존 근무성과를 그대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미화원들이 입사를 희망하고 있다"며 "근무여건과 복지혜택 등 모든 측면에서 기존 업체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 도시공사는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오는 1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수=임문택기자 mtlim@

## 전 북

## 순창 올 관광객 300만명 전망

11월말 기준297만6000명... 지난해보다 24% 늘어

올해 순창을 찾은 관광객이 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순창군에 따르면 올 11월말 기준으로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이 297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 늘었다.

군은 연말까지 관광객 300만명 돌파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관광객이 늘어난 가장 큰 요인은 유난히 고운 오색단풍을 보려고 강천산을 찾은 가을 탐방객이 110만여명에 달해 전년보다 15% 증가한 때문으로 군은 분석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고창 운곡습지 생태복원 나선다

### 郡·새만금환경청

### 100억원 투입 예정

전북지역의 유일한 내륙습지인 '고창 운곡습지' 보호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보전계획이 수립·시행된다.

순창군 관계자는 "여행 파워 블로거를 초청한 팬투어와 김강열차 투어, 수학여행단 유치 등으로 수도권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며 "맞춤형 체험·휴양공간을 꾸며 녹색농촌체험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도 시설개선과 습지개선 지역 생태복원 등의 사업에 70억원(국비 포함)을 투입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자연, 사람과 상생하는 생명의 습지'라는 미래상을 설정하고 앞으로 5년간 ▲야생생물이 살아 숨 쉬는 생명의 터 ▲생물자원의 건전한 연구공간 ▲삶의 질을 증진하는 체험의 장 등 3개 정책목표로 서식지 보존 및 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고창 운곡습지는 과거 계단식

논 등으로 개간돼 경작이 이뤄지면서 산지형 저층 습지 훼손지역의 전형이었으나 생태계 회복과정을 거쳐 원시 습지 형태로 복원된 곳이다. 지난해 3월 '습지보전법'에 따라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같은 해 5월 '람사르 습지'로 신규 지정됐다.

양 기관은 '자연, 사람과 상생하는 생명의 습지'라는 미래상을 설정하고 앞으로 5년간 ▲야생생물이 살아 숨 쉬는 생명의 터 ▲생물자원의 건전한 연구공간 ▲삶의 질을 증진하는 체험의 장 등 3개 정책목표로 서식지 보존 및 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30년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형태의 습지가 형성돼 학술적인 연구와 보전 가치가 아주 높은 지역이다. 멀종위기 야생 동식물인 수달 등 6종의 보호 동식물을 비롯해 식물 459종 등 모두 549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박금석 전북취재본부장 nogusu@

/고창=강철수기자 knews@



'습지보호 지역'과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고창군 운곡습지.

## 순창 농·특산물 브랜드 '순창 올안에'

울타리 '올'·'안에' 합성어



상표출원...포장재에 사용

순창군이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순창 올안에'〈사진〉를 개발해 상표 출원했다.

순창군은 지난 4월부터 공동 브랜드 네이밍으로 도시 소비자와 생산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난달 13일 '순창 올안에'로 최종 확정하고 상표출원을 막쳤다.

'순창 올안에'는 울타리와 우리

의 준말인 '올'과, '안에'의 합성 어이다. 청정지역 순창의 땅, 올

타리 안에서 생산돼 믿고 먹을 수 있는 신선한 농·특산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군은 앞으로 판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순창 올안에' 공동 브랜드를 사용할 계획이며, 내

년도 농·특산물 유통 포장재에

순창군은 지난 4월부터 공동 브랜드 개발에着手해 여러 가지 브랜드 네이밍으로 도시 소비자와 생산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난달 13일 '순창 올안에'로 최종 확정하고 상표출원을 막쳤다.

순창군 관계자는 "공동 브랜드를 활용해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이미지를 높이는 한편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통해 돈버는 농업으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남원시 산동면 딸기 재배농가들이 겨울딸기를 첫 수확해 출하를 위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 단신

### 국립 민속국악원 '아리랑' 공연

국립 민속국악원(원장 정상열)이 오는 29일 민속국악원 예원당에서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아리랑을 주제로 '한 민족의 정가(情歌)-아리랑'을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마음을 여는 아리랑, 꿈의 아리랑, 세계 속의 아리랑, 평화의 아리랑을 주제로 국악

/남원=백선기자 bs8787@

### 군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관 표창

군산시 청소년수련관이 저소득·맞벌이 부부 자녀의 방과후 교육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최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기관 운영실무자 1인 연수회가 제공, 1년간의 평가유예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번 평가는 여성가족부가 전

기의 선율과 춤사위, 새롭게 펼쳐진 아리랑 형식 구성의 아리랑 민요 등 국립민속국악원 연주단의 다채로운 전통예술을 선보인다. 또 이날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을 위해 허브차 시음행사, 연하장 보내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운영된다.

국립 민속국악원은 아리랑을 주제로 한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허브차 시음행사, 연하장 보내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운영된다.

국립 민속국악원은 아리랑을 주제로 한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허브차 시음행사, 연하장 보내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운영된다.

국립 민속국악원은 아리랑을 주제로 한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허브차 시음행사, 연하장 보내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운영된다.

국